

# 제14차 남남협력 고위급회의의 결과보고

제14차 남남협력 고위급회의가 2005.5.31(화)~ 6.3(금)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바,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## I. 입장표명 및 토의내용

- 대부분의 국가는 최근 남남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, 특히 LDC, LLDC, SIDS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함.
- 또한 UNDP 내 ‘남남협력 Special Unit’의 역할 강화를 요청하면서 동 Unit이 개별 남남협력사업에 대한 조정(coordination) 강화,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, 국별 focal point 구축 및 기능강화를 요청하였음.
- 한국은 남남협력의 중요성을 평가하면서 정보통신기술(ICT)분야와 관련 우리나라의 기여 노력, 특히 최근 ESCAP APCICT 유치를 소개함.

## 1. 상세 논의내용

### 1) 의장 및 UNDP 총재(Mark Brown) 연설

- 의장은 개발과 안보간의 상관관계를 강조하면서 남남협력에서 재원의 증가, 무역촉진, 해외 직접투자(FDI)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을 제기
  - 주요 이슈에 대해 남남협력고위급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금번 회의에서 동 위원회의 기능강화 또는 역할정립 방안에 대해 토의해 주기를 요청
- UNDP 총재는 남남협력이 MDG 및 여러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, 남남협력이 개도국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됨을 강조
  - 개도국 총 수출액 중 약 40%가 개도국간에 이루어지는 등 개도국간의 협력강화가 개도국의 발전에 중요 요소가 되므로 남남협력이 계속 발전되어야 함.
  - 금번 회의 및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개도국정

상회의를 통해 남남협력뿐만 아니라 선진·개도국간의 협력 등 '삼각 협력' 강화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하고, 빈곤퇴치를 위해 원조공여국들의 기여 증가와 더불어 개도국의 원조 수용능력 강화 등 역할분담을 강조함.

## 2) 주요국가 발언내용

### 가. 77그룹

- 남남협력이 개도국의 성장을 위해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동 협력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개도국이 안고 있는 도전과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작용되어서는 안되며, 특히 선진·개도국간 협력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됨.
-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현황과 관련하여 ① '무역, 금융, 기술분야'에서 불평등 요소 제거, ② 기존 국제회의에서 약속한 사항(ODA GNI 대비 0.7% 공여 등)의 완전한 이행, ③ 남남협력 강화를 위한 자원 동원, ④ 민·관, NGO와의 파트너십 강화 필요성 지적

### 나. EU

- 남남협력 강화는 무역, 금융, 투자와 관련 지역협력 강화 등 성과가 있으나, 기술협력 분야는 아직도 상당한 과제가 남아있음.
- 남남협력 이슈는 MDG의 달성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하며, 일부 개도국의 발전사례를 확산시켜 2015년까지 전 세계 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함.
- 이를 위해 선진개도국에서 실행된 전문적 지식과

경험의 공유가 필요하며, 사회간접자본의 개발과 지구·지역 환경문제 등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통합절차가 도움이 될 것임.

- 남남협력 및 북남협력을 통합할 수 있는 '삼각협력'이 강화되어야 함.
- 다만 남남협력의 최종적 책임은 개도국 자신들에게 있으며, 이에 따라 개도국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.

### 다. 일본

- 남남협력 및 삼각 협력에 대해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, 남남협력이 MDG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함.
- 남남협력은 개도국간 상호 지원을 강화하는 포괄적 접근방법(inclusive approach)을 취해야 하며, 개도국간 '무역과 투자' 확대는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긴요한 요소가 됨.
- '아시아-아프리카 파트너십'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.

### 라. 중국

- 경제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남남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메카니즘이 부족하므로 과거의 경험을 통해 남남협력의 특성과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.
- 남남협력에 있어서 자원부족이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, UN 내 개발기구들의 적극적 자원 동원 노력이 필요함.

### 3) 우리나라 발언내용

- 최근 2년간 남남협력 발전에 대해 평가하고 ‘남남협력 Special Unit’가 개도국, 선진국, 유엔, 민간 부문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함.
- ICT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ICT 분야 기여노력을 소개함. 특히 최근 ESCAP APCICT 유치를 통한 아태지역 ICT 개발협력 의지를 표명함.
- 또한 남남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원 동원이 필수적이고, 이와 관련 선진국, 개도국 포함한 삼각협력의 중요성 및 민간분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지적함.

## II. 결정문(Decisions) 채택 및 폐회

### 1. 채택 결정문

- 결정문 1: 부에노스아이레스행동계획의 이행 성과 평가 및 개도국간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향전략
- 결정문 2: 남남협력의 적용 및 촉진을 위한 전체 틀
- 결정문 3: 15차 남남협력고위급 회의의 잠정의제

### 2. 주요 쟁점 사항 및 논의경과

- 77그룹이 작성한 결정문 초안에 대하여 참가국간 논의가 진행되었으며, 77그룹이 전향적 자세로 결의문 협상에 임하여 결정문 1중 최근의 ‘OECD/DAC과 UNDP간의 대화’ 분야에 대한 추가여부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큰 논란없이 채택됨.

- 미국은 여타 59차 총회 결정문 논의에서처럼 ‘새 천년목표(MDG) 달성’ 표현에 이의를 제기하여 MDG 대신 ‘새천년 선언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합의한 개발 목표’로 수정한 문구가 77그룹의 양보로 채택됨.

## 3. 상세 논의내용

### 1) 결정문 1

- PP 3
  - ‘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남남협력의 중요성을 강조’하는 초안에 대하여 EU가 제안한 ‘남남협력의 증진 및 이행의 일차적 책임은 개도국에 있다’는 문구(58차 총회 결정문중 PP2)를 77그룹이 수용하여 채택됨.

### □ OP 3

- 초안에는 없었으나 일본측의 추가제안으로 논의된 동 조항은 금년 2월 개최된 ‘OECD DAC와 UNDP간의 포럼’ 내용 및 표현방법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음.
- 일본측은 동 포럼에서 ‘DAC 회원국과 일부 신흥공여개도국(emerging donors)간 대화(dialogue)가 있었음을 환영’한다는 문구의 추가를 주장하였으나, 77그룹은 개도국은 ‘공여국(donors)’이 될 수 없다고 맞서 ‘OECD DAC와 UNDP가 공동 주관한 포럼을 주목한다’는 선에서 합의함.

### □ OP 5

- 당초 안에는 NEPAD 등이 간단히 언급되었으나, 일본이 ‘아프리카개발에 관한 도쿄 국제회

의'의 추가를 주장하여 77그룹이 다른 관련 회의(CARICOM, ACD)를 포괄하지는 수정제안을 받아들여 채택함.

## 2) 결정문 2

### □ OP 8

- '남남협력 Special Unit'의 재원 확충과 관련 미국측이 '기존재원을 통해 동 Unit이 활동하도록 한다'라는 표현의 추가를 주장하였고, 이에 대해 77그룹이 동 표현을 수용한 대신 '추가적인 재원(additional resources)'도 가능하도록 수정 제안하여 동 변경안을 채택함.

## 3) 결정문 3

### □ 이견 없이 채택

□ 동 회의에서 합의한 결정문은 UNDP집행이사회를 거쳐 금년 9월 개최예정인 MDG 관련 정상회의에서 고려될 예정인 바, 이를 통해 남남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될 것으로 보임.

□ 또한 금년 2월 파리에서 개최한 'UNDP와 OECD DAC가 공동 주체한 포럼'에서 DAC회원국과 개도국간의 정책대화가 유용했다는 평가가 있었으며, 우리나라는 남남협력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우수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는 동 포럼 등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.

□ 우리나라는 수석대표 연설을 통하여 최근 ESCAP 총회에서 유치 결정한 'ICT센터'등을 통해 개도국과의 IT분야 협력 노력을 소개한 바, 향후 동 센터의 활동방향과 관련하여 '남남협력 Special Unit'과의 협력 증진도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노력이 좀 더 평가받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됨.

[자료: 주유엔 대표부]

## Ⅲ. 관찰 및 평가

□ 금번 회의는 지금까지 남남협력이 달성한 업적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며, 특히 MDG 달성에 있어서 남남협력이 주요한 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나,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, EU를 비롯한 선진국과 77그룹간 입장차이가 지속됨.  
- 77그룹은 재원부족을 강조하면서 혁신적인 재원마련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'남남협력 Special Unit'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기존 재원의 사용을 주장하는 등 이견이 지속되었음.